



환절기에 발생하는 이비인후과 질환

이 기 형

1. 급성비염

일명 코감기라고도 하며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코속 점막에 종창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년중 어느계절이나 발병하나 가을철과 봄철에 비교적 많다. 급성비염의 잠복기는 4~48시간이며 전파력은 대단히 강하며 담화 기침 재채기 발그릇 작난감 등을 통해서 옮긴다. 급격한 기온, 습도의 변화, 피로

과음 등 전신 및 국소의 저항력 감퇴가 직접적요인이 된다.

충농증 편도선 인두 치아등의 질환이 간접적 요인이 된다. 증상은 코속과 목속의 소양감과 코가 막히고 재채기 콧물이 계속해서 많이나오고 기침 후각장애 코먹은 소리(鼻聲), 두통 등이 온다. 특히 젖먹이 어린이에서는 비호흡 장애로 인하여 젖을 빨수가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질식하는 수가 있다.

초기에는 많은양의 콧물이 나오
고 차차 끈끈하고 누런 콧물로 변
한다. 전신상태는 사지가 추시고
전신이 나른하며 열이나고 오한이
있으며 성인에서의 발열은 경미하
나 어린이에서는 고열인 때가 많다
이러한 증상은 5~7일간 계속되고
차차 경쾌해 진다.

치료는 특수한 예방이나 치료법
이 없고 대증요법이 있을 뿐이다.

일단 본증에 걸리면 섭씨 22° 내
외와 55%습도로 환기가 잘되는 방
에서 48~72시간 안정하면 합병증
이 없는한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다.

급성비염의 합병증으로는 축농증
만성비염 급성중이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등이 올수 있다.

2. 급성편도염

급성 편도염은 구개편도에 연쇄
상구균이 감염되어 일으킨다.

증상은 갑자기 오한, 고열로 시작
되고 전신권태 두통 이통 사지통,
목이 건조한 후 연하곤란과 음식물
이나 침을 삼킬때 통증이 심하며
입속에서 악취가 나는 수가 많다.
발열은 4~5일에 하강하며 편도의
염증도 그때는 현저하게 경쾌해 진
다.

본증의 합병증은 편도주위농양
인후농양급성중이염 급성축농증 등

을 유발한다.

또 혈관을 통하여 급성신장염 급
성충수염 급성심근염 급성화농성관
절염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치료는 수일동안 안정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스피린 및 진통
제를 투여하면 불쾌감과 통증이 감
소되며 적당한 양의 항생제를 투여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3. 급성후두염

보통 감기나 기관지염의 부분증
상으로서 생기는때 원인균은 바이
러스이며 급격한 기후의 변화 습도
의 감소등이 유인이 된다. 이밖에
외상성인 원인으로서는 열기(熱氣)자
극성가스 먼지등의 흡입과 술, 담
배의 과용 과격한 발성등도 본증을
일으킨다. 또한 인플루엔자 기관지
폐염, 홍역, 백일해, 성홍열, 장티
프스 등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하다.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쉬고 심해
지면 목소리가 안나오기도 한다.

목과 후두의 소양감 건조감 이
물감 기침등이 있고 때로는 가벼운
정도의 동통과 연하통이 있다. 분
비물은 처음에는 적으며 끈끈하고
점액농성으로 변한다. 이와같은 증
상은 4~5일에 없어지기 시작하나
기침과 가래는 7~10일까지 계속될
때도 있다. 치료는 심하지 않은 경

“傳來藥에 기생충 많다”

森下, 일본 기생충 예방회장 경고

「야생 토끼의 간이나 개구리를 낚것으로 먹는다던지 독사나 뱀의 간을 생피에 담궈먹는 다던지 하는것들은 어느 것이건 간에 여름철에 몸을 보호하는 강장제로 인기가 있지만 몇모로고 먹으면 오히려 무서운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日本の大阪大學 명예교수(일본 기생충 예방회 이사장) 森下薫박사는 이런 종류의 傳來하는 약아닌 약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경고했다.

森下교수는 昭和 22년부터 13년간 대판대학 미생물병연구소의 교수로 재직 한 기생충 학자.

재직중 10년동안에 자기가 치료한 환자나 학회등에 보고된 케이스중에서 이런 재미있는 예를 몇가지 들었다.

<例 1>

49세의 남성, 날때부터 위장이 약해 뱀의 피를 포도주와 혼합해서 생간을 담궈 먹은후 1년후엔 有線條虫이 나타났다.

<例 2>

51세의 여성, 만성위장장애로 식욕부

우는 침상안정의 필요가 없으나 3~4일간 일상업무나 학업을 쉬도록 하고 찬 공기를 피함이 좋다. 실온을 조절하고 환기하도록 하며 습도를 적당히한다.

담배와 술은 금하며 음성을 제한하여 후두의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진, 체중감소, 빈혈이 계속되어 원기회복을 위해 「스프링」피와 계속해서 뱀의 피에 간을 담궈 복용, 3.4개월 후엔 有線條虫에 걸렸고.

이 條虫은 원래 개, 고양이, 쥐 따위에 기생하는데 幼虫은 뱀의 내장에도 파고들어가 감염된 뱀을 생식하면 인체에 침입한다. 또 條虫의 수가 많을 경우 복통 설사등을 일으킨다.

좀더 지저분한 개구리에 기생하는 「만손」孤虫(條虫의 幼虫으로 「사나다」虫의 일종)을 강장제로서 생으로 먹은 32세의 여성의 경우, 우측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5개월동안에 우측 우방위로 이동되어 수술을 한후 반성 彌虫이 나왔다.

유충이 눈등에 들어가면 실명되는 일이 있다.

강장 보혈에 효과가 있다고하는 야생 토끼도 조충의 일종인 共尾虫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까지 요충만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森下씨는 야생 토끼를 먹고 成虫에 감염된 케이스를 4개나 발견했다.

목에 냉 혹은 온습포를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적당한 양의 항생제와 기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진해제를 투여하며 특히 거담제를 함께 쓰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필자=이비인후과 개업·전문의·의박>